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The-K Hotel(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가축질병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가축질병 위기관리 정책 및 전망”과 “가축질병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국내 및 해외 초청 전문가의 강연이 있었으며, 농식품부·지자체·검역본부 및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금번 세미나(세션 1)에서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정책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해외 연자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오순민 방역총괄과장이 『국내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가축질병 분야의 해외 전문가로부터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정책에 관한 모범사례(Dr. Brian Evans, OIE 부사무총장)』, 『가축질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정책(Dr. Frank Van Tongeren, OECD 농업통상과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세션 2)에서는 「가축질병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가축질병 발생시 보상비용 공유제도(Dr. Frank Alleweldt, OECD 관련 민간 전문컨설턴트)』, 『보상비용에 대한 정부와 민간 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방안(Dr. Jonathan Taylor, 호주 농업부 과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축질병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가축방역 분야에 경제학적 방식을 접목한 효과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구제역·AI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 실시

농식품부는 지난 22일부터 7월 17일까지(4주간)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농협 및 방역본부 등 민관합동으로 73개반, 292명(4인 1조)을 구성하여 구제역 및 AI 발생농장, 도축장 및 전통시장 등 665개소에 대한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점검 대상별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한 방역조치 적정 이행여부, 유입요인 등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긴급 방역체계를 민간 및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차단방역 시설 등이 미흡한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의식부족 농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구제역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세부 실행계획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개별농장, 도축장, 전통시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방역체계 개편 발표

농식품부는 금번 구제역·AI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구제역·AI 상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① 농가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방역 주체간 역할분담

을 명확히 하는 등 방역추진체계를 정비한다. ② 주변국 구제역·A 발생상황과 철새도래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 상시 예찰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을 전환한다. ③ 축산업 허가제 강화 및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등 체질개선을 통해 국민 친화적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소독기 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및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6.9) 등을 통해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경에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전복 시대 개막, 신청사 이전 기념식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원장 황성구)은 전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을 마무리하고 지난 4일 축산 연구 대도약의 새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전 기념식을 열었다. 전북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대학, 산업계, 지역 주민 대표 등 축산업 관계자와 농업인 4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비전 선포와 이전 경과 보고, 유공자 포상, 축산 연구 미래 도약 영상물 상영, 기념식수와 함께 대한양계협회 등 축산 관련 단체 13곳과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1952년 중앙축산기술원으로 발족한 이래 63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들을 냈다. 동물생명공학을 국립축산과학원은 미래 축산연구 100년 역사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 축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외국 육가공품 판매장 사례집 보급



농촌진흥청은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의 식육 및 육가공품 판매장 사례」 소책자를 펴내고 기술보급에 나섰다.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은 식육가공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산 식육의 부위별 균형 소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새로 만든 업종이다. 한 곳에서 식육판매와 육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다. 이 안내 책자에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미국의 14곳의 판매장 사례가 실려 있다. 사업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위주로 만들었으며, 내부 구조와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방법도 함께 담았다. 이 책자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063-238-7352, 7398)로 요청하거나, 누리집(www.nias.go.kr→공지사항)에서 PDF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수입 의존했던 '씨닭' 국산화 기반 마련, 닭 4,500마리 보급

수입에 의존하던 씨돼지와 씨닭의 국산화 기반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국산종축개발 사업이 3년차에 들어서며 씨가축(종축)의 육성과 보급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GSP종축사업단은 국립축산과학원과 7개의 민간기업이 보유한 순종 자원 가운데 집단의 크기와 질병정청화 수준을 고려해 돼지 3품종 3,052마리, 닭 12계통 1만 2,000마리를 1세대 원원종으로 뽑았다. 이후 돼지 5,848마리, 닭 1만

1,169마리의 후세대 원원종 모두를 수입 없이 자체 충당했는데, 이는 1세대 원원종으로부터 생산한 12만 마리 이상의 돼지와 100만 마리 이상 닭의 능력을 검정해 선발했다. 아울러, 닭은 4,500마리의 씨닭을 생산해 교배시험용으로 공급을 마쳤다. 이에 GSP 참여 7개 기업의 경우 필요한 씨돼지와 씨닭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하는 결과를 거뒀다. 비용 기준으로 수입 대체 효과는 총 181억 원(종돈 177억 원, 종계 4억 원)에 이른다. GSP종축사업단의 목표는 ①지속육종기반 구축 ②씨가축의 국산화 달성(씨돼지 70% 이상, 씨닭 30% 이상) ③수출 실현이다. 씨닭은 증계개량정보시스템(gspcbis.kr)을 개발, 등록하고 정보를 지속 관리하는 중이다. GSP사업을 통한 씨가축의 국산화 보급 목표는 연간 닭 80만 마리다. 수출 목표는 씨돼지, 씨닭을 통틀어 31억 원 규모로 축산 관련 협회와 해외 진출 기업을 통해 연결망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해외 실증 시범 농장을 운영해 씨가축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축 생산성 증진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확대

농촌진흥청은 지난 23일 국제회의장에서 미국 농업연구청(USDA-ARS)과 '가축 강건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연구 동향'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열고 축산 분야 연구 개발 동향과 발전 방안을 찾았다. 이번 워크숍은 미국 농업연구청과의 2002년 포괄적 연구 협력 양해각서와 2004년 해외협력연구실 협약 체결로 설치한 농촌진흥청의 '해외협력연구실(RAVL, RDA-ARS Virtual Laboratory)'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 농업연구청 국가연구 프로그램의 선임책임자인 제임스 린지(James Lindsay) 박사는 기초연설을 통해 연구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건강 한 가축 생산을 위한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국

립축산과학원 문홍길 과장은 농촌진흥청의 가축 생산성 향상 연구 동향을 발표하고 두 나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이날 가축 유전자 발굴과 탐색 연구, 가축에 대한 항생제 대체제 활용 현황 등 모두 9개 주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육단계 위생·안전성 제고 교육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 까지 사육단계(소·돼지·닭·오리 등) 축산농가 약 1,4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사육단계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교육』을 전국 20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물 HACCP 관련제도·정책 설명 및 유해물질 잔류방지 방안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생산단계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워크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철새이동” 개최

검역본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철새 이동에 관한 국제 워크숍(International Workshop on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and Bird migration)”을 안양 소재 검역본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시·도 방역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북미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HPAI 발생 역학과 철새의 이동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참석자들간 활발하게 논의하

였다.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일본 및 몽골에서 초청된 해외전문가 5명과 국내 전문가 3인 등 총 8명이 세부 주제별로 강의를 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검역본부는 지난 5월 28일 안양소재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도축장 영업자,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축장 위생관리 및 HACCP 운용수준 향상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도축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 및 HACCP운용수준 평가」결과, 우수업체 4개 업체의 HACCP 운용 및 식육부산물 위생관리 사례 발표와 소비자 단체의 특강(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장 위생관리) 그리고 검역본부의 도축장 식육부산물 매뉴얼 설명 등이 있었다.

김천 혁신도시 청사 이전을 위한 시동을 걸다



검역본부는 지난 5월 2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김천 청사로의 이전을 위한 '김천 청사이전 추진단'을 발족, 본격적인 김천 혁신도시 청사 이전 추진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청사를 준공하고, 2015.12.31.까지 신축 김천청사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다만, 일반실험 및 연구부서 7개과와 차폐실험실을 보유한 3개과는 시·구제역 등 질병진단 및 실험부서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 2016.11.~2.29.과 2016.3.1.~4.30. 기간 동안 이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김천 혁신도시 12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마지막으로 이전을 하게 되며, 이전이 최종 완료되는 2016.5월중 개청식을 가질 예정이다.

신규 공무원 임용으로 전문인력 충원



검역본부는 동·축산물 검역 및 국가 재난형 가축방역 업무 등을 수행할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해 '15년 상반기(3월~5월)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6월초 2주간의 직무 관련 교육을 마친 수의주사보 20명, 수의연구사 7명, 탐지조사 전문경력관 4명을 지난 15일 임용하였다. 이번 경력경쟁채용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내에 구제역·고병원성시 등 가축질병의 잦은 발생 등 방역업무수요 증가 및 해외여행 자유화 및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따른 검역업무 수요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인력도 증원한 바 있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중부지원, HACCP 컨설턴트 간담회 개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인증원)



은 지난 5월 20일 중부지원에서 축산물 HACCP 발전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HACCP컨설턴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증원은 안전관리 통합인증과 농장 HACCP인증을 확대 하고자 현장 심사규정, 심사시 지적사항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등의 자료 제공 및 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HACCP인증 및 운용수준을 제고하고자 실시하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타기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에 대한 현황과 현장 적용시 예측되는 문제점, 도축장에서 HACCP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가축에 대한 HACCP표시, HACCP 이력 추적제 등에 관한 설명과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농장 HACCP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제학술대회에서 “축산물HACCP 특별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인증원은 지난 6월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식품과학회와 공동으로 축산물 HACCP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축산물 HACCP와 안전관리(HACCP for

Livestock Products &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주제로 인증원 관계자들과 전국 주요 축산대학 대학원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안전관리 발전 방향 모색 및 전문 학술정보 공유로 축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는 김성일 사무관(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의 ‘축산물 HACCP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건국대학교 서건호 교수, 한국소비자원의 홍준배 연구위원, 인증원 백승희 연구분석실장 등 4명이 각각의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등 토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농장·유통분야 HACCP활성화 대책 논의”



인증원은 지난 18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우수축산물 브랜드 및 지자체(농·축협) 소속 HACCP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장·유통분야의 HACCP활성화와 안전관리통합인증 확대를 위해 협력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증원 영남지원(지원장 이주연) 주관으로 영남지역 소재 10여개 우수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HACCP관계자가 함께 모여, 현장의 애로점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관리통합인증과 HACCP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통합인증제 심사와 농장·유통분야 HACCP심사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HACCP 심사관들과 업체 관계자들간의 질의·응답식 토의 진행을 통해 일부 해결책을 모색했다.